

다문화가정 자녀의 계승어 교육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를 대상으로-

박은주

(오사카 조가쿠인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관찰대상과 조사방법
 - 2.2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
3. 인터뷰 조사
 - 3.1 인터뷰 목적과 내용
 - 3.2 인터뷰 분석 결과
4. 인터뷰 비교 분석
 - 4.1 한국어 주말학교 인터뷰 분석
 - 4.2 일본어 주말학교 인터뷰 분석
 - 4.3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비교
5. 결론 및 제언

<Abstract>

Park Eun Joo. 2019. 1. 15. **Heritage Language Teaching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t Hamburg's Korean Weekend School and Japanese Weekend School,**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3, 21-47.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urrent condition of heritage language teaching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t Korean and Japanese weekend schools in Hamburg. Observations and

comparisons were made of heritage language teaching at both schools to confirm whether they were providing education in which the multicultural backgrounds of the students were sufficiently reflected.

The observation method was an analysis of interviews with 20 students from each of the school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alysis revealed that the Japanese weekend school was giving education to the students with consideration of the multicultural backgrounds of the students and that a majority of them had a positive image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weekend school did not seem to be giving proper education to t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ir multicultural background as a positive asset.

Therefore, to facilitate the teaching of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overseas, a method suitable for the global age is required that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tudents and enables them to positively accept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that they have, rather than implement ethnic education with priority given to the students' parents or grandparents' country of origin.**(Osaka Jogakuin University)**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ducation, Civil Society Movement, Establish Identity, Diversity of receptor

1. 서론

해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 교육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계승어 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세계화추진사업

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해외 한인 후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아울러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¹⁾.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류의 해외 진출로 인해 한국계 재외동포들이 한국어 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제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만이 아닌 현지 외국인을 위해서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2016). 하지만 한국어 교육이 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10여년 동안에 걸쳐 유럽지역의 한국어 주말학교 수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독일에 있는 한국어 주말학교 수가 가장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박영순(2006)에서는 독일 한국어 주말학교 수가 42개교(2005)였으나,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32개교(2016)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일 한국어 주말학교가 약 10년에 걸쳐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0년 이후 더욱 활발해진 한류의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²⁾, 독일 한국어 주말학교의 감소 현상은 의외적인 것으로, 한국어 주말학교 교육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국어 주말학교³⁾를 대상으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서 함부르크 일본어 주말학교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한국계와 일본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계승어 교육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1) 자세한 내용은 조항록(2017)참조

2) 한국어 주말학교에서 독일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어 주말학교 개설은 학교의 성격상 재독동포 자녀들을 우선으로 한다.

3) 본고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편의상 함부르크 한인학교(Korean is che Schule in Hamburg)를 한국어 주말학교, 함부르크 일본어 보습교(日本語補習校)를 일본어 주말학교로 칭하기로 한다.

독일인들과는 다른 본인들의 다문화 배경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본고의 목적은 계승어 교육의 현황과 계승어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보다 효율성 있게 시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계승어의 개념에 관하여 Valdés(1995)는, 가정에서 습득한 언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문장구성에 영성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고, 조태린(2010)과 강승혜(2013)에서는, 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다. Cummins(1990)에서는 계승어 교육을 다른 언어 환경에서 부모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했다.

본고에서는 함부르크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양 주말학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계승어 교육은 Cummins(1990)이론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2.1 관찰대상과 조사방법

유럽국가들은 역사와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의 이민정책은 자민족 우위의 차별배제 모형⁴⁾을 기준으로 하며,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상담 프로그램

4) 독일 이민정책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장인실 외(2012) 참조

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민족이나 자문화 우월주의 또는 사상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⁵⁾. 이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 근거한 것이나, 그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독일의 다문화 사회구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다. 이러한 독일의 교육 배경으로 유추해 본다면, 독일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으며 다문화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와 일본계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계승어 교육은 순조롭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함부르크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를 대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계승어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찰대상을 함부르크의 한국어 주말학교로 선택한 이유는, 독일에 있는 한국어 주말학교 중에서 프랑크푸르트 한국어 주말학교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주재원 자녀들이 다수인 프랑크푸르트 한국어 주말학교는 계승어 교육 과정을 관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한국어 주말학교를 제외하면,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가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함부르크 일본어 주말학교를 한국어 주말학교의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규모가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와 비슷하고, 같은 독일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승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이 한국어보다 먼저 시행되었기에 일본어 주말학교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계승어로서의 일본어 교육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60년대에 일본어 교육을 위해 일본어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했고, 1972년 국제교류기금이 설립된 이후,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후손들을 비롯해 현지의 외국인들을 대상으

5) 독일 역사교육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이병련(2000) 참조

로 일본어 교육과 일본 문화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⁶⁾. 이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20-30년 먼저 일본의 문화 보급과 함께 계승어 교육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어 주말학교가 한국어 주말학교보다 계승어 교육현장에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를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상호간에 개선할 부분이나 새롭게 수용되어야 할 부분이 포착된다면 앞으로의 계승어 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방법은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침을 비교한다. 대상자는 양 주말학교에서 처음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을 시작한 학생⁷⁾들로 제한하고, 대상자들에게 계승어 교육 및 계승어 학습과 관련한 몇 가지 항목을 추려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를 양 주말학교에서 처음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을 시작한 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대상자 각각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학생들 대부분이 주말학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을 처음 접한다고 할 수 있다.

2.2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

2.2.1 한국어 주말학교

함부르크의 한국어 주말학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973년 설립
- 학생 수: 약 100명⁸⁾(2018년 2월 현재)

6) 자세한 것은 『海外の日本語教育の現状 (2006)』 참조.

7) 본고에서는 주말학교 학습자들을 연령과 상관없이 명칭의 통일을 위해 편의상 학생으로 칭하기로 한다.

- 수업: 매주 금요일 3시간 수업⁹⁾(15:00-)
- 반 구성: 독일 현지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12학년¹⁰⁾을 기준으로 한다.
- 유치부 (3세-6세)
- 1학년-9학년반 (10-12학년 반은 미개설, 2018년 2월 현재)
- 청소년 한국어반.
- 교육과정
- 유치부: 5세부터 한글문자 학습.
- 1학년-12학년: 한국어(단계별)

함부르크 주말학교에서는 정규반¹¹⁾ 교육과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함부르크 한인학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으며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개괄적으로 알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

2.2.2 일본어 주말학교

8) 정규반(재독동포 자녀 대상)의 학생 수이며, 일본어 주말학교와 비교하기 위해 일반 독일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9) 주말학교 수업은 45분을 기준으로 한다.

10) 여기서 말하는 12학년은 유치부를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다. 독일은 초등학교 과정이 4학년까지이며, 5학년이 되면 김나지움(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학교)이나 교사 또는 전문기술직을 위한 학교로 진학을 한다. 김나지움 과정은 예전에는 5학년-13학년이었으나, 지금은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기간인 12학년을 마치면(주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에서는 재독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반을 ‘정규반’, 일반 독일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을 ‘성인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함부르크의 일본어 주말학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963년 설립
- 학생 수: 약 100명(2018년 2월 현재)
- 수업: 매주 토요일 3시간 수업(오전반 9:00- /오후반 13:00-)
- 반 구성: 일본 현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 유치부(3세-6세)
- 소학부(1학년-6학년)
- 중학부(1학년-3학년)
- 고등부(1학년-3학년).
- 교육과정
- 유치부: 5세부터 히라가나 학습.
- 소학부: 국어¹²⁾ 2시간, 산수 1시간 필수/5-6학년 선택과목¹³⁾: 사회과 수업(지리, 역사).
- 중학부: 국어 3시간 필수/ 선택과목:수학
- 고등부: 국어 3시간 (기본 이수과목)

일본어 주말학교의 교육 방침은 다음과 같다.

“본교는 각기 다른 일본어 환경이나 학습동기·목적 등이 있는 학생들이 매주 1회 일본어를 공부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즐겁게 일본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교육을 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어 주말학교의 교육 목표와 일본어 주말학교의 교육 방침은

12) 일본어 주말학교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배부하는 일본 현지와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명이 국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말학교에서는 과목 이외에 일본어를 칭할 경우, 국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라고 한다.

13) 선택과목은 신청자가 5명 이상일 때 수업을 실시하며, 선택과목은 별도의 수업료가 추가된다.

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 주말학교에서는 정체성 교육을 내포한 한국어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어 주말학교에서는 정체성 교육보다는 각 개인의 현황을 반영한 일본어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인터뷰 조사

인터뷰 조사는 함부르크의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승어 교육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수월하게 응할 수 있는 항목을 간단하게 추려서 작성했다.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에서 실시한 인터뷰 항목은 동일하다.

3.1 인터뷰 목적과 내용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 20명과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¹⁴⁾를 실시했다. 새로운 언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높거나,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접하는 정보가 긍정적일 경우, 언어 학습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말학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인터뷰 대상자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름과 나이, 성별 등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자녀들의 인터뷰를 허락 받았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 기재의 유무가 본 연구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등은 별도로 기입하지 않기로 한다.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은 8세-15세이고, 성별은 남자가 22명, 여자가 18명이다. 그들의 다문화 가족 구성에 대해서는 표<1>, <2>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어 주말학교에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본어 주말학교에서 계승어로서의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한국어와 일본어는 외국어와 다르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은 주말학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접하고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계와 일본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각자의 다문화 배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각각의 주말학교 학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을 통해서 이전보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는지 아닌지를 관찰하고,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도는 계승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1 } 인터뷰 항목

- 1) 본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2)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 3) 왜 한국어/일본어를 배우는가.
- 4) 주말학교에 오는 것은 즐거운가.
- 5) 한국인/일본인 친구가 있는가.
또는 한국인/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 6) 한국/일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가.
- 7) 한국/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가.
- 8) 한국/일본에 (다시) 가보고 싶은가.
- 9) 한국어/일본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은가.
- 10) ‘한국’ / ‘일본’ 하면 떠오르거나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 2 } 인터뷰 조사 방법과 기간 및 대상자 가족구성

함부르크의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2학년-8학년)과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소학부 2학년-중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긴장 해소와 정확한 의사표현을 위해 독일어를 사용했으며, 인터뷰 형식은 격식없이 평상시와 같은 대화형식을 취했다. 가능한 한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장소는 일부 학생들은 주말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식사초대를 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기간은 2012년 9월- 2014년 9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래의 <표1>¹⁵⁾은 인터뷰에 응한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가족 구성을 나타낸 것이고, <표2>는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가족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인터뷰에 응한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

아버지	어머니	학생 수
뉴커머	뉴커머	2
재독동포 2세	뉴커머	4
독일인	뉴커머	4
재독동포 2세	독일인	2
뉴커머	재독동포 2세	2
재독동포 2세	필리핀	1
독일인	재독동포 2세	2
네팔	재독동포 2세	1
스위스	뉴커머	1
가나	재독동포 2세	1

15) 본고에서는 편의상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1980년을 기준으로 1980년대 이전에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올드커머, 1980년대 이후에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뉴커머로 칭하기로 한다.

<표 2 인터뷰에 응한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

아버지	어머니	학생 수
뉴커머	뉴커머	3
재독동포 2세	뉴커머	3
독일인	뉴커머	6
재독동포 2세	독일인	2
뉴커머	재독동포 2세	2
독일인	재독동포 2세	3
인도네시아	재독동포 2세	1

3.2 인터뷰 분석 결과

3.2.1 한국어 주말학교

한국어 주말학교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독일인 (20명) ⇒ 독일인이 아니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 2)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 독일어 (20명) ⇒ 이유:
독일어가 편하다 (8명).
한국어로는 감정표현을 할 수 없다 (7명).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5명).
- 3)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 가족(어머니 · 아버지 · 조부모)의 권유 때문에 (10명).
 - 한국을 방문 했을 때, 한국사람이나 친척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5명).

- 잘 모르겠다 (5명).
- 4) 주말학교에 오는 것은 즐거운가.
- 즐겁다 ⇒ 이유:
- 어머니(조부모)가 좋아하신다 (3명).
친구들과 놀 수 있다 (2명).
- 재미없다 ⇒ 이유:
- 수업시간에 행사를 위한 연습을 너무 많이 한다 (10명).
수업이(한국어가) 어려워 이해를 할 수 없다 (5명).
- 재미없다 15명의 동의의견 ⇒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수업인지, 행사 연습을 위한 수업인지 알 수가 없다¹⁶⁾.
- 5) 한국인 친구가 있는가. 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 한국인 친구가 없다 (10명).
 -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명).
 - 한국인 친구가 있다 (2명).
- 6) 한국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가.
- 한류에는 관심이 있지만 역사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15명) ⇒
- 이유: 굳이 역사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낀다 (8명).
역사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 같다 (7명).
- 문화나 역사에 큰 관심이 없다 (5명) ⇒
- 집에서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 별로 들은 적이 없다.
- 7)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가.
-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 (11명).
 -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 (9명).
- 8)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은가.
- 다시 가보고 싶다 (8명).
 - 가보고 싶다 (7명).
 - (지금은) 다시 가보고 싶지 않다 (3명) ⇒

16) 한국어 주말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은주 (2018) 참조.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다.

· 별로 가보고 싶지 않다 (2명) ⇒ 너무 멀다.

9)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은가.

· 계속하고 싶다 ⇒ 이유:

어머니(조부모)는 내가 한국어를 잘하기를 원한다 (3명).

한국인 친척들은 독일어를 못한다 (2명).

· 계속하고 싶지 않다 ⇒ 이유:

한국어를 사용할 데가 없다 (8명).

한국어를 아는 독일인 친구가 아무도 없다 (7명).

· 계속하고 싶지 않다 15명의 동일 의견 ⇒ 사용하지도 않을
한국어보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10) ‘한국’ 하면 떠오르거나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 K-pop (11명).

· 한류 드라마 (4명).

· 멀다 (2명).

· 김치 (2명).

· 분단국가 (1명).

이상으로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3.2.2 일본어 주말학교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독일인 (20명) ⇒ 독일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2)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 독일어 (15명).

· 독일어 · 일본어 (5명) ⇒

일본어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 복습 (어머니나 아버지).

3) 왜 일본어를 배우는가.

- 가족(어머니 · 아버지 · 조부모)의 권유 때문에 (6명).
-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 (5명).
- 일본 애니메이션 · 만화를 일본어로 보고(이해하고) 싶다 (5명).
- 잘 모르겠다 (4명).

4) 주말학교에 오는 것은 즐거운가.

- 즐겁다 ⇒ 이유: 일본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7명).

친구들과 놀 수 있다 (4명).

어머니(조부모)가 좋아하신다 (4명).

· 즐겁다 15 명의 동일 의견 ⇒ 거의 매달 주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일본의 여러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일본에 (다시) 가보고 싶다.

문화 체험은 학생들이 자유로 참가하는 것인데, 일본 문화는 독일과는 다르고 독특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가해서 그 시간을 즐긴다.

- 재미없다 ⇒ 이유: 한자 습득이 어렵다 (3명).

주말에는 쉬고 싶다 (2명).

· 재미없다 5명의 동일 의견 ⇒ 학년에 따라 습득해야 하는 새로운 한자가 너무 많다.

5) 일본인 친구가 있는가. 또는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가.

- 일본인 친구가 없다 (10명).
-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7명).
- 일본인 친구가 있다 (3명).

6) 일본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가.

- 일본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있다 (16명).
- 일본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4명).

7)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가.

- 가본 적이 있다 (15명).

- 가본 적이 없다 (5명).
- 8) 일본에 (다시) 가보고 싶은가.
 - 다시 가보고 싶다 (13명).
 - 가보고 싶다 (5명).
 - 자주 가고 싶지는 않다 (2명) ⇒ 너무 멀다.
- 9) 일본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은가.
 - 계속하고 싶다 ⇒ 이유:
 - 일본 전통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싶다 (7명).
 - 일본인 친척과 대화를 하고 싶다 (4명).
 -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4명).
 - 계속하고 싶지 않다 ⇒ 이유:
 - 일본어(한자) 습득이 어렵다 (3명).
 - 주말에는 쉬고 싶다 (2명).
 - 계속하고 싶지 않다 5명의 동일 의견 ⇒
 - 일본어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10) ‘일본’ 하면 떠오르거나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 애니메이션 (7명).
 - 만화 (6명).
 - 스시 (3명).
 - 기모노 (2명).
 - 사무라이 (2명)

이상으로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4. 인터뷰 비교 분석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4.1 한국어 주말학교 인터뷰 분석

먼저 한국어 주말학교 인터뷰 내용을 항목별로 보기로 한다.

인터뷰 (1)에서 대상자 20명 모두가 망설임 없이 본인은 ‘독일인’이라고 한 것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는, 그들이 가정에서 한국, 또는 한국 문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터뷰 (2)에서 대상자 20명 모두가 가정에서 독일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는 가족과 사용하는 언어가 독일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모가 한국어로 대화하기가 어렵거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간혹,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독일어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나머지 의식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피하다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뷰 (3)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5명 있었고, 한국어 학습에 대해 본인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는 학생이 15명 있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인터뷰 (2)에서 보여진 것처럼, 가정에서 독일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의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들에게 의욕적인 한국어 학습을 요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인터뷰 (4)에서 주말학교가 즐겁다는 학생보다 즐겁지 않다는 학생 수가 많았다. 재미가 없다는 학생 중에는 학교 수업에 불만이

있었는데, 행사를 위한 과도한 준비과정 등이 불만이라는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이 학교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주말학교 교육 방식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인터뷰 (5)에서 한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이 2명이었고, 그외의 학생들은 한국인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한국인에 대해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한국인을 만날 기회나 한국인 또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짐작 된다.

인터뷰 (6)에서 한류에는 관심이 있지만, 역사에는 별로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가족에게서 한국에 대해 별로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뷰 (7)에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1명, 방문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9명이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최소 연령이 8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아직 없다는 것은, 부모가 한국과의 연계성이 별로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인터뷰 (8)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학생, 또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그보다 인상에 남는 것은, 지금은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국의 단면만 보았을 가능성이 높는데, 조용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을 체험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이끌려 주로 한국의 대도시에만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터뷰 (9)에서 한국어를 계속하고 싶다는 학생이 5명,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이 15명으로 그 수가 현저히 많았다. 이렇듯 학생들이 한국어 습득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환경이 학습에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에서라도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이 지금보다 즐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10)에서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에 대해 ‘한류’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한류가 해외 진출을 하기 전까지,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4.2 일본어 주말학교 인터뷰 분석

일본어 주말학교 인터뷰 내용을 항목별로 보기로 한다.

인터뷰 (1)에서 대상자20명 모두가 망설임 없이 본인은 ‘독일인’이라고 한 것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는, 그들이 가정에서 일본, 또는 일본 문화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터뷰 (2)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독일어나 주말학교에서 배운 일본어 복습을 위해 부모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5명 있었다. 이는 부모가 일본어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투른 일본어로나마 부모와의 대화를 시도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의 계승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들의 계승어 학습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인터뷰 (3)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목적 없이 배우는 학생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터뷰 (4)에서 주말학교가 즐겁다는 학생 수가 15명이었는데, 그 중 학교에서 주체하는 일본 문화체험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주말학교 교육이 학생들과 잘 맞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5)에서 일본인 친구가 있는 학생보다 일본인 친구가 없는 학생 수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학생이 7명 있었는데, 이는 조금씩 일본인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6)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일본 문화나 역사에 관심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본의 문화를 우월하게 포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주말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인터뷰 (7)에서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5명, 방문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5명이었다.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월등히 많았으나, 인터뷰 대상자의 최소 연령이 8세임을 고려할 때, 일본과 연계성이 별로 없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 (8)에서 일본을 방문해보고 싶은 학생이 5명,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학생이 13명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주말학교에서 행해지는 일본의 문화 체험이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9)에서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싶다는 학생이 15명, 계속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5명으로, 일본어 학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10)에서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에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높은 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한국어 주말학교와 일본어 주말학교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4.3 계승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비교

인터뷰 조사 중에 계승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 3), 4), 9)에 나타나는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항목 3)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 인터뷰 항목 3>

인터뷰 항목	유사점	상이점
3) 한국어/일본어를 배우는 이유	(긍정적 반응) · 부모님의 권유 · 한국/일본 방문을 위해 (부정적 반응) · 잘 모르겠다.	

<표3>과 같이 항목 3)을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에서 유사점이 보였다.

항목 4)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4 인터뷰 항목 4>

인터뷰 항목	유사점	상이점
4) 주말학교는 즐거운가	(긍정적 반응) · 친구와 놀 수 있다 · 부모가 좋아한다 (부정적 반응) · 습득이 어렵다	(긍정적 반응) · 일본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일) (부정적 반응) · 주말에는 쉬고 싶다(일) · 행사가 많아서 싫다(한)

항목 4)에서 학교가 즐겁지 않은 이유로서의 유사점은 습득의 어려움이었고, 상이점은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단체행사가 원인으로 나타났고,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항목 5)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5 인터뷰 항목 9>

인터뷰 항목	유사점	상이점
9) 한국어/일본어 학습을 계속할 것인가	(긍정적 반응) · 친척과의 소통 (부정적 반응) · 습득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긍정적 반응) · 부모님이 좋아한다(한) · 일본 유학(일) · 일본 전통문화의 이해(일) (부정적 반응) · 주말에는 학교를 쉬고 싶다(일)

항목 9)에서 ‘한국어 / 일본어 학습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판이하게 다른 점은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은 일본 전통문화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유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어떤 계기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인터뷰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국어 주말학교의 행사를 위한 준비 수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개수업 주제 선정과 반대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비민주적 교육.

② 수업 중 문화나 역사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의 ‘우리’ 문화와 함께 행해지는 정체성 교육.

구체적으로 인터뷰 항목 3), 4), 9)에서 수업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의견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보여주기 위한 교육 ⇒ 공개수업, 학예회, 읽기대회 등의 학교행사 준비를 위한 수업.

· 특징: ① 학생들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를 우선으로 하는 준비와 연습.

② 학교행사는 단체 행사이므로 학생은 한 명도 빠짐 없이 반드시 발표에 참가해야 한다는 규칙.

b. 민족 교육 ⇒ 한국인 정체성 강조.

· 특징: ①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문화, 우리 민족’ 등의 단어들과 함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하여 강조¹⁷⁾.

②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모국어¹⁸⁾ 또는

17) 조태린(2014) 에서도, 재외동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재외동포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다.

18) 인터뷰 항목 1) 에서 학생들 모두 “독일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계승어로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강요.

③ 한민족 또는 한국인이 ‘최고’ 라는 객관성이 결여된 우월주의 사고의 주입.

위와 같은 수업 방식이나 단어 선택은 독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독일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함부르크 한국어 주말학교는 독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합하지 않은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한국 문화나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나 한국인과의 공감대 형성에 걸림돌이 되어,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마저 저하되면서 학생들이 자퇴를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매년 고학년반 개설에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어 주말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고 즐기며, 장래 일본 유학까지 희망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 교육에 민족이나 정체성을 내포하지 않고, 독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단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교육한 효과라고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어 주말학교보다는 일본어 주말학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현황에 맞추어 효과적인 계승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태린(2010), 강승혜(2013)에서도, 재외동포에게 ‘모국어’는 ‘국가’나 ‘조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자신의 출신국을 의미하는 건지, 부모나 조상의 조국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함부르크의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지닌 다문화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¹⁹⁾ 계승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함부르크에 거주하고 있는 재독동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은 아직 학생들의 다문화 배경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주말학교에서 행해지는 정체성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한국인 또는 한국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이 독일 한국어 주말학교의 감소 현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정체성을 갖는다. 그러나 학교에서 각 개인의 정체성을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실질적으로, 3장의 <표1>과 <표2>를 볼 때, 주말학교에서 행해지는 정체성 교육이 타당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각 학교의 전체 학생 수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수이기는 하나, 대상자 수에만 비중을 두어 결과를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한국어 주말학교 학생들이 주말학교 교육에 공감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 교육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말학교 학생들은 모두 독일에서 교육을 받으며, 독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독일의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어와 일본어 주말학교 학생의 90퍼센트 이상이 독일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것을 고려한다면, 계

19) 조항록(2017)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 국어 교육이나 기타 기존의 교과 교육 영역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어 교육 현장에서 민족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계승어와 계승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들의 사고를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교육자의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교육자의 의식이야말로 학생들이 접하게 될 계승 문화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나, 지속적인 계승어 교육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출신지를 우선으로 정체성을 앞세운 민족 교육을 실행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현황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지니는 다문화 배경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교수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혜(201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 사실과 관점> 3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81쪽~107쪽.
- 박은주(2018). 독일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함부르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학과 조선학, 그 쟁점과 코리아학 2>, 패러다임북. 357쪽~389쪽.
- 박영순(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도서출판 월인.
- 이병련(2000). 역사교과서의 의미와 서술기준 그리고 분석에 대하여, <사총> 52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161쪽~191쪽.
- 장인실 외(2012). 외국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

- 천>, 학지사. 141쪽~166쪽.
- 조태린(2010).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18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쪽~218쪽.
-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총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5호, 이중언어학회. 381쪽~405쪽.
- 조항록(2017).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 한글파크.
- 재외동포재단 연차 보고서(2016). 재외동포재단.
- Valdés, G. (1995). The Teaching of Minority Language as Academic Subjects: Pedagogical and Theoretical Challeng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 pp.229-328.
- Cummins, J. & Danesi, M. (1990). The Development and Denial of Canada's Resources, *HERITAGE LANGUAGES*. Lorimer.
- 国際交流基金(2006). 海外の日本語教育の現状. 国際交流基金出版.

필자소개

성 명 : 박은주
 소 속 : 오사카 조가쿠이대학 국제영어학부
 전자우편 : geheimnis6525@gmail.com

투고일: 2019. 1. 15 / 심사일: 2019. 2. 7 / 심사완료일: 2019. 2. 16